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Investment Strategy
2026.7.14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국-이란, 다시 '강대강'..유가 • 금리↑, 미국증시↓

- 미국증시 하락: 다우 -0.26%, 나스닥 -1.55%
- 미국,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WTI 9.4%↑
- 월러 연준 이사 "근원물가 높으면 금리 인상 검토해야"

Summary

미국증시 일제히 하락

7월 13일 월요일(현지시각) 미국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여기에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까지 더해져 국채 금리가 상승하자 고밸류 기술/성장주를 중심으로 하락. 전 거래일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ADR(SKHY)이 전일 한국증시에서 본주가 급락한데 이어 낙폭을 확대, 반도체주 전반의 하락을 주도함.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26% 하락한 52,498.64에 이날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79% 하락한 7,515,34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1.55% 하락한 25,873.18에 마감했고 나스닥100 지수는 1.88% 하락, 러셀2000 지수는 0.83% 하락함. 변동성지수 VIX는 14.17% 급등, 17.16에 마감.

(다우 -0.26%/ S&P500 -0.79%/ 나스닥 -1.55%/ 러셀2000 -0.83%)

미국,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유가 급등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과 서로를 향한 공격적 언사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향한 과정에서의 진통으로 여겨지며 시장 내 영향력이 축소됐던 미국-이란 전쟁 이슈가 다시 핵으로 부상.

전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고 미국이 이에 맞서 추가 공습을 진행한데 이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이어 미 해군 주도의 47개국 연합 해군 합동 해양정보 센터는 이란 항구와 석유 터미널을 포함하는 이란 해안선 전체가 이란 해역 봉쇄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 조치는 미 동부 시각 기준 14일 오후 4시(한국 기준 15일 오전 5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미국은 이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릴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는 대신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수수료로 받을 것이라고 밝힘. 이 계획은 국제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고 걸프 산유국들과의 외교적 마찰도 피하기 힘든 것으로 실제 추진 여부는 불확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해역을 둘러싼 일련의 조치와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을 자극했으며 이란은 이에 결사 항전 의지를 드러냄. 이번 조치로 양국은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이전 상황으로 사실상 돌아갔으며 실제 양측의 군사적 공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사실상 전

쟁이 재개된 것과 마찬가지이며 전황이 다시 확전 양상을 띨 수도 있다는 경계감이 유가 급등으로 이어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간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 미 중부사령부는 한국시각 14일 오전 5시 45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으며 이를 통해 이란군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밝힘.

상황의 전개 방향과 맞물린 아시아장에서의 유가 등락 폭이 취약해진 투자심리와 맞물려 변동성의 정도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임.

월러 "단기 통화정책 긴축 필요할 수도"

현지시각 14일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이에 앞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음. 월러 이사는 이번주 발표될 근원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뜨겁게 나온다면 FOMC는 가까운 시일 안에 통화정책 긴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 그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인 근원 PCE 가격지수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시작 전인 올해 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꾸준히 높아졌다며 최근의 물가 상승이 중동 사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음을 지적. 실제 "관세와 에너지 가격,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가 물가 압력을 높이고 있다"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 역시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의 원인으로 지목함. 월러 이사의 이 같은 발언은 데이터에 따라 이번달 FOMC에서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혀 유가 상승에 더해 국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이번달 FOMC는 이달 28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FOMC를 앞두고 이번주 토요일인 18일부터는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통화정책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는 'Black Out' 기간에 들어갈 예정.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 5월 4.2%를 기록해 3년래 최고를 기록한 바 있으며 시장에서는 14일 발표될 6월 CPI의 경우 상승률이 3.8%로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근원 CPI 상승률은 2.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연준의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강화된 가운데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나올 경우 시장은 단기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특징종목

반도체주 하락..AI 인프라 관련주 전반 약세

전 거래일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한 SK하이닉스 ADR(-9.32%)은 전일 한국 시장에서 본주가 15.37% 하락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한데 이어 미국증시에서도 비교적 큰 폭 하락하며 공모가 149달러를 소폭 웃도는 152.35달러에 거래를 마침. ADR 상장을 앞두고 커졌던 기대감이 상장 직후 이슈 모멘텀 소멸로 이어졌으며 마침 불거진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국내 일부 기관에서 내놓은 SK하이닉스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 등이 맞물려 본주 급락, 연쇄적인 ADR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다만 회사의 기초 체력보다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심리 변화, 포지션 조정 등의 영향을 반영한 하락으로 읽힘.

전일 발표된 세계 최대 파운드리 대만 TSMC(-2.89%)의 6월 매출은 AI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월간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날 반도체주 전반의 약세를 제어하진 못했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4.32%), 브로드컴(-3.98%), 엔비디아(-3.52%), AMD(-4.21%), 인텔(-6.21%), 퀄컴(-2.74%), 마벨 테크놀로지(-7.75%), 샌디스크(-12.63%), 웨스턴디털(-4.64%), 시게이트 테크놀로지(-5.46%), 램 리서치(-5.83%),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4.50%), KLA(-4.00%), 테라다인(-5.14%) 등 메모리/스토리지 낙폭이 특히 컸으며 이외에도 장비주를 비롯 전 밸류체인 내 종목군이 일제히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4.78% 하락했고, SOXQ(-4.86%), SOXX(-4.77%), SMH(-4.16%), DRAM(-9.11%), DISK(-10.94%) 등 관련 ETF도 5~10%대 약세를 보임. 특히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비중이 높은 ETF의 낙폭이 두드러졌음.

직접적 반도체주 이외 코히어런트(-5.27%), 루멘텀 홀딩스(-4.22%), 코닝(-4.08%), 네비우스(-4.16%), 코어위브(-6.27%), IREN(-5.25%) 등 광통신과 네오클라우드 업체까지 AI 인프라 투자 관련 대부분 종목이 하락세.

한편 AI 반도체주 약세의 반대급부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대체로 상승. AI 인프라 투자 관련 비용 부담과 재무적 압박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오라클(-6.47%)은 약세 구간에 머물렀지만 마이크로소프트(+1.53%)를 비롯해 세일스포스(+4.84%), 서비스나우(+3.30%), 어도비(+3.12%), 인튜이트(+5.38%), 팰로 앨토 네트웍스(+1.35%), 팔란티어 테크놀로지(+2.56%) 등은 상승.

빅테크: 애플 '사상 최고가'

빅테크 전반적으로는 종목별로 혼재된 흐름을 보였지만 애플(+0.63%)의 저력만은 뚜렷하게 확인함.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대형주를 둘러싼 경계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래도 믿을건 애플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AI 관련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최근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조정 분위기 속에 오히려 주목받는 요인이 되고 있음. 다시 말해 AI 관련 투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AI 관련주 조정 분위기 속에선 오히려 애플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 전달 AI 신기능 발표가 실망스럽다는 평가와 함께 급락했지만 6월 25일 저점 이후 15% 이상 반등했으며 이날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 유가와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장 중 고점에서 오름폭은 축소.

테슬라(-3.19%)는 제프리스의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도 하락했고 메타 플랫폼스(-1.86%)와 구글 알파벳A(-1.31%)은 UBS에서 목표주가를 하향. 아마존닷컴(+0.80%)과 마이크로소프트(+1.53%) 정도가 현금 창출력과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교 우위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상승.

이외 특징주

유가 급등에 에너지주와 유틸리티주가 상승했고 시장 내 자금의 순환적 이동 흐름 속에 헬스케어, 금융주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임.

다만 금리 급등은 성장/테마주들에게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약세 요인.

스페이스X(-4.24%)는 이날 하락으로 139.14달러에 종가를 형성하며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 전일 번스타인이 중국을 중심으로 우주 산업 내 기술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점도 투자심리 약화 요인으로 작용 중이며 이외 로켓 랩(-5.32%),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7.56%),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4.22%), 레드와이어(-5.80%), 아처 에비에이션(-3.81%), AST 스페이스모바일(-7.83%) 등 우주 산업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

대표적 성장/테마주인 양자 컴퓨팅 관련주도 금리 급등에 따른 부담을 소화하며 약세. 아이온큐(-9.29%), 디 웨이브 퀀텀(-7.12%), 퀀텀 컴퓨팅(-7.62%), 리게티 컴퓨팅(-7.13%), 퀀티뉴엄(-9.03%) 등.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가 힘을 받으며 전일 64,000달러대에 머물렀던 비트코인은 다시 62,000달러 초반대로 하락. 코인베이스(-1.07%), 로빈훗 마케츠(-1.88%), 마라 홀딩스(-3.25%), 스트래티지(-2.68%) 등 관련주도 일제히 약세.

소프트웨어 업체 CCC인텔리전트솔루션스(+5.24%)는 행동주의 투자사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대규모 지분 확보했다는 블룸버그 보도에 상승. 엘리엇의 투자 이후 회사가 매각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국제유가 급등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재개되면서 전황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가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 봉쇄 조치를 재가동한다"고 밝혔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대가로 선적 화물의 2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밝힘. 미국 주도 47개국 연합 해군의 합동해양정보센터는 이란 항구 및 석유 터미널을 포함하는 이란 해안선 전체가 이란 해역 봉쇄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힘.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을 자극했으며 이란은 결사항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이란 해역의 봉쇄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사실상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이며 실제 양측의 군사적 공격도 지속되고 있어 사실상 전쟁이 재개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유가 급등으로 이어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42% 급등한 배럴당 78.14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9월물도 9.59% 급등한 배럴당 83.30달러에 거래를 마침.

국제 금가격은 유가 상승과 함께 상승한 국채금리 영향으로 하락.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 산하 금속선물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2.6% 이상 하락해 트로이 온스

당 4천달러를 간신히 지켰으며 은 선물 가격도 3.6%대 하락으로 온스당 57달러대를 기록.

국채금리 상승..10년물 4.6% 돌파

미 국채 금리는 전일에 이어 단기물을 중심으로 상승(가격 하락).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인플레 상승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다소 매파적으로 읽힌 발언까지 더해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7.4bp 상승한 4.2815%를 기록, 17개월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으며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6.3bp 상승한 4.6237%를 기록, 지난 5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4.60%를 상회.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 금리는 4.7bp 상승해 5.1052%를 기록.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40% 초반대로 전장 대비 10%p 가량 높여 반영했으며, 9월 인상 가능성도 60%대 후반대에서 80% 중반대로 대폭 상승.

달러 가치 이틀째 상승

미국 달러화 가치는 이틀 연속 상승.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이에 달러화도 강세 압력을 받음. 여기에 이번달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월러 연준 이사 발언으로 보다 강화된 것도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함.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34% 상승, 101.293을 기록. 전일 강세를 보였던 엔화는 다시 약세 전환, 달러-엔 환율은 162엔대를 재차 돌파(엔화 가치 하락)함.

전일 서울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1,503.40원에 거래를 마친 달러-원 환율은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85원)를 감안시 5.35원 하락한 1,497.20원에 마감.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